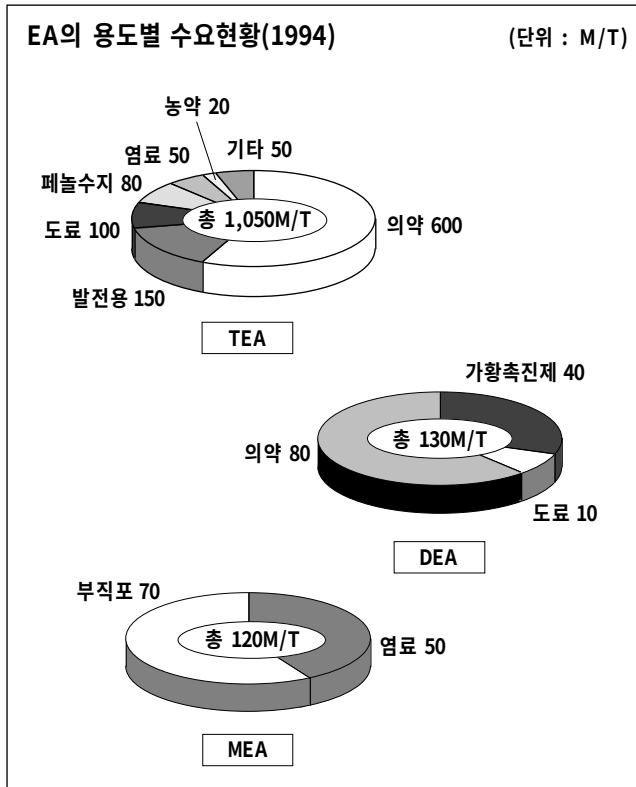


EA

도료·염료에서부터 농약·의약에 이르기까지 Chemicals제품의 용제 또는 첨가제로 널리 쓰여온 EA(Ethylamine)의 94년 국내수요는 1300톤으로 매년 10% 내외의 꾸준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Air Product를 비롯 BASF, DAICEL, ICI등 메이커들의 물량공급 제한으로 국내시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따라 가격도 지난 3~4년동안 톤당 1800달러선에서 유지되어 온 것에서 탈피, TEA기준 1959달러에 거래되는 등 95년 1/4분기 이후 2000달러를 훨씬 넘어섰다.

또 고가인 DEA의 경우는 이미 2000달러를 넘어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계속된 가격상승을 예고하는 등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94년 에틸아민 용도별 수급현황을 보면, TEA가 의약용으로 600톤 사용된 것을 비롯 발전소용 150톤, 도료 100톤, 페놀수지 80톤, 염료 50톤, 농약 20톤, 기타 50톤으로 모두 1050톤 정도 사용됐다.

또 DEA는 의약 80톤, 가황촉진제 40톤, 도료 10톤으로 모두 130여톤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MEA는 염료 50톤, 부직포 70톤으로 모두 120톤 사용됐다.

이에따라 TEA가 전체수요의 8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EA

와 MEA는 각각 10%와 9.2%에 그쳐 수요시장의 대부분을 아직까지 TEA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년시장은 최근 거둬지고 있는 가격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입기업들의 물량확보 싸움과 함께 수요 2000톤이상의 시장진출 하한선을 무시한 국내 에탄올 생산기업의 신규참여 여부 등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